

회 요 세 평



김명화 교육학박사·작가

몇 해 전 정현백 여성장관은 “관점을 달리하면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은 성폭행범이자 여성 납치범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해 언론의 이슈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다.

장관으로서 동화를 왜곡시켜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사와 함께 성 평등을 위해 관점을 바꾸기가 필요하며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성인지 개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뉴노멀의 시대에서 성인지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에 전래동화의 사건의 관점을 바꿔야 할 것이다. 선녀와 나무꾼은 우리에게 익숙한 전래동화다. 성교육을 받으면서 선녀와 나무꾼의 동화의 사재를 들어 주인공이 성 폭행 범이라는 것은 반갑지 않다. 성교육을 쉽게 해 주는 것은 좋지만 성교육에 이야기 밈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야기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게 강력한 에너지를 주며 힘을 발휘해준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예상하지 못했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며 생활을 할까? 의문을 가져본다. 이야기는 인간의 삶과 함께 해 왔다. 구전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코메디언의 어머니의 무류학교를 넘어 산업사회가 되면서 학교에서 교재로 활용됐다. 인류와 함께 해 온 이야기는 시대와 상황을 넘어 삶의 지표가 되기도 했으며 인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인류와 함께 삶의 지표

아동문학 2020년 가을 호에서 한명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동화의 도전: 개성적 인물의 창조로 아동문학 펼쳐가는 새로운 어린이 문학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줬다. 용에 의하면 ‘인류는 역사와 문화를 통해 공유된 정신적 자료의 저장소’를 제시하면서 집단 무의식은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삶과 문화 속에 전승되면서 개인의 의식과 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문화유전자의 힘, 문화 복제 밈(meme)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했다.

이야기의 밈 현상은 ‘아기돼지 삼형제’는 ‘늑대가 들려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로 윌리엄 스타이크의 그림 동화 ‘슈렉’은 영화로 다시 탄생하였으며 안테르센의 ‘눈의 여왕’은 ‘겨울왕국’ 영화로 만들어 음반까지 상상을 넘어설

만큼의 성공을 거뒀다. 18세기 문학은 구전이 큰 몫을 차지하였으며 공주나 왕자가 이야기의 핵심이었다면, 19세기가 들어서면서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려운 삶속에서도 당당히 헤쳐 나가는 빨간 머리 앤, 알프스 소녀 하이디, 캔디, 소공녀 세라, 권정생 작가의 몽실 언니를 들 수 있다.

21세기가 되면서 새로운 영웅이 등장한다. 슈퍼맨, 배트맨, 스파이더맨은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마블시리즈의 등장은 어린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으며 다시 재현되는 빨간머리앤, 곰돌이 푸 등은 이야기 밈 현상으로 독자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인간의 삶속에 이야기 문화 복제 현상은 계속된다. 신데렐라 동화는 이야기 밈이 계속되어지면서 새로운 버전으로 관객을 만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문화 복제 되어 인간의 삶에 활력을 이어줄 것인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야기 밈은 어떻게 재현될 것인가? 시대를 넘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의 상상의 세계로 데려다 줄 것인가?

뉴노멀의 시대에 이야기의 성인지와 병행한다면 주인공은 새롭게 탄생할 것이다. 어쩌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는 로봇과 인간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가 탄생할 수도 있다. 미래의 이야기는 작가들의 상상에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이야기로 풀어갈 것이다. 상상만 해도 재미있다.

2020년 우리는 예견하지 못한 시대에 살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갈 우리의 이야기는 네트워크를 연결한 이야기 밈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인간은 상상의 동물이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프로그래에서 아이들은 밤하늘의 달을 보고 달 속에 토끼가 떡방아를 찧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보지 않았어도 이야기를 통해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 내는 아이들의 창조성은 대단하다. 아이들은 이야기 밈으로 또 다른 이야기 세계를 확장해 간다.

시대의 변화와 미래 초월

창조의 힘을 발휘하는 이야기 밈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변화와 미래를 초월하는 힘을 발휘했으면 한다. 포스트코로나를 이롭게 우리의 삶과 동반할 이야기와 인물의 등장을 기다려 본다. 아마 시대의 도전을 극복하는 이야기 밈이 등장하지 않을까 싶다.

이야기는 오랫동안 책이 그 자리를 지켜왔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 문학도 접속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제레미 리프킨은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소유의 시대는 가고 접속의 시대가 온다’고 했다. 이제 이야기는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미디어와 연결한 세상에서 사람과 접촉을 넘어 접속으로 이야기 밈 시대를 만들어 갈 것으로 본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인간은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 밈 여행은 계속될 것이다.

기고



이권재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본부장

필자는 운전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지만 운전을 방해하는 교통체증을 끔찍이 싫어하는데 이런 상황을 가정해보자. 공사로 고속도로가 정체되기 시작하며 차량 속도가 줄어든다. 여기에 자유한 안개까지 더해져 기어가는 수준이 된다. 필자같은 운전족에선 당황스럽고 고역스런 상황이다. 그런데 안개가 걷히면 차량은 예전처럼 쉿쉿 달릴 수 있을까?

지난 4일 여수에서 열린 제9회 KITA-전남TP 무역포럼 연사로 나선 최용민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열광을 들으며, 필자는 코로나19라는 복병을 만난 대한민국 수출호가 처한 상황이 바로 위와 같다고 느꼈다. 미 제약기업 화이자 의 백신이 90% 효과를 보인다는 소식이

일상도 경제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까 희망이 크다. 그러나 글로벌 무역 환경은 코로나19 이전부터 구조적 변화 속에 있다는게 최 원장의 일침이다.

세계 무역환경 변화의 핵심은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GVC는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생산 네트워크인데,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전세계 기업이 분업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용절감을 위해 생산 과정을 나눠 가장 효율적인 국가에 배치한 셈이다. GVC가 잘 작동하려면 생산에 필요한 부품, 특히 중간재 국경을 활발히 넘나들어야 한다. 중간재 교역 증가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GVC 성장은 황금기를 맞았는데 한국무역역시 그러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말이다.

세계적으로 기업의 GVC 참여율은 2011년 이후 52% 수준에 머물렀고, 중간재 교역 비중도 2013년 61.3%에서 2017년 56.5%로 빠르게 감소했다.

GVC 패러다임이 바뀐 주된 이유는 세 가지다. 먼저 중국이 단순 조립지가 아닌 독자 제조강국으로 바뀌었다. 성장정책 기조가 수출에서 내수로 변화하며 자급률을 높였기 때문이다. 3D프린팅 및 사

GVC 패러다임과 한국무역

트랙토리 등 자동화 관련 기술이 도입되며 생산비가 낮아지고, 동일본 대지진 등 예상할 수 없는 외부충격이 생산 네트워크에 미치는 충격을 우려한 대기업이 본국 또는 소비자와 가까운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것도 GVC 약화를 낳았다. 끝으로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색깔을 강화하며 중국을 적국 견제하자 중국 위주의 GVC 구조가 아세안 및 인도로 다변화되며 세계화가 지역화로 대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GVC 패러다임 전환으로 세계 무역환경이 변화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회사와는 상관없는 거대 담론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그런 CEO의 의문이 최 원장은 포럼에서 기업의 대응전략도 제시했다. 먼저 자동화의 물결이 제조만이 아니라 서비스로도 확대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무 자동화를 빠르게 도입하고 있다. 미국 IP SOFT사의 로버티어 아멜리아(AMELIA)가 한 예다. 아멜리아는 30초 안에 300페이지의 매뉴얼을 암기하고 20개 언어를 구사, 수천건의 전화를 동시처리 할 수 있어 은행, 보험사, 통신사, 호텔 등 20여개사에서 활용하고 있다. 로버티어의 도입 그리고 그 비서를 다룰 전문인력의 고용이 CEO 의사결정 테이블에 오른 셈이다.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조와 소싱에 대한 접근 방식도 재고해야 한다. 전염병 또는 쓰나미로 특정지역 생산이 멈추어도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망을 다양화하고 생산·유통의 백업능력을 추가하는 등 탄력적 생산능력 확보가 필요하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수요가 많아지면서 디지털 플랫폼을 보유한 대기업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작지만 강력한 혁신조직을 상설화하여 회사 전반에 혁신의지를 제고하는 작업에 돌입할 때다.

보수공사, 교통체증, 안개 등 안전하고 쾌적한 운전을 방해하는 요소는 날로 늘어가고 있다. 그럼에도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차선이탈 방지, 크루즈 기능 등 자동차에 적용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필자는 여전히 운전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대한민국 수출호와 여기 탑승한 무역인들도 수출환경의 변화라는 파도를 넘기 위해 사내 혁신조직을 정비하고 GVC 변화 대응에 관심과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다. 그 첫 단추로 무역협회가 매주 발간하는 최신 보고서를 카톡으로 날어드리는 트레이드트럭 서비스 구독부터 추가하는 것은 어떨까. (카카오톡에 @트럭 검색)

특지광장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에 따라 지방경찰이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2005년 참여정부 때 단원법인 자치경

‘자치경찰제’ 시행시 경찰 인력난 피할 수 없어

찰법제정안을 정부안으로 발의했으며, 이는 기초단위 중심의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된 체제다. 하지만 당시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독립문제 관련 갈등이 커지고 또 지

자체의 재정부담 반발까지 나오면서 결국 폐기됐다.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의 인력과 예산 투입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경우 경찰 인력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으

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미친다.

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등 시·도지사의 독단적인 전횡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행정안전위원회가 국회에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자치경찰제 세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고흥경찰서 대서파출소 이재복

사 설

광주·전남 코로나 방역 고삐 늦추지 말아야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지역감염은 대학병원과 산업단지·유흥업소 등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20~30대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n차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 때문에 사회 전반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탓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역감염만 놓고 보면 50일 넘도록 잠잠하던 안정세를 깨고 지난 7일 이후 감염자는 광주가 37명, 전남은 52명으로 확진자는 16일까지 폐쇄하고, 역학조사·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를 종합해 코호트 격리와 병원 운영 여부를 확정한다.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사는 직장동료와 가족을 중심으로 지역 내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관심사다. 전

남에서는 여수·순천·광양에서 1.5단계로 격상됐다. 코로나19에 취약한 요양병원,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직장, 학교, 지하철역, 카페, 가족지인 모임 등 일상 공간에서 집단감염이 연이어 발생한 영향이 크다고 한다.

문제는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일상의 불편은 물론 경제에 큰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강화했지만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치 못지않게 국민 개개인의 주의와 방역수칙 준수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코로나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단이 없는 지금으로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다. 또 먼 미래를 내다보는 대책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언젠가 달질 전 세계적인 백신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역량을 집중하기를 바란다.

자영업자 대출 급증 대책 절실하다

자영업자들의 대표적 업종이라 할 수 있는 숙박과 음식점업의 대출이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다. 이들 업종의 생산지수가 70대로 추락, 관련 업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탓이라 자조 섞인 한숨만 쉬고 있기에 상황이 너무 걱정스럽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올해 9월 숙박·음식점업의 생산 및 경산지수는 79.0이었다. 서비스업 생산지수가 매출액을 바탕으로 산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15년 이래 최악이다. 특히 지난해 3월 이후 모두 100을 넘은 점 올해도 70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심각성을 보여 주고 남는다.

더욱이 이들 자영업의 상황이 언제 개선될지 요원하다는 점이다. 숙박 및 음식점업 경기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여름 코로나19가 잠시 주춤하던 때 100개가

이 회복됐으나 재확산이 시작된 9월 다시 70대로 움츠러들었다. 감염증 확진자가 증가하면 움츠러들고 줄어들면 회복되고 있다.

문제는 그사이 숙박·음식점업의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 2분기 현재 예금취급기관의 숙박·음식점업 대출 잔액은 71조 원으로, 1년새 20% 이상 급증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편성한 2008년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역대 최대 폭의 증가다. 자영업자 상황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대출 증가는 자영업자들의 건전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걱정스럽다.

자영업자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이나 다름 아니다. 이들의 가계 건전성이 훼손될 경우, 서민경제가 무너질 것임은 당연한 이치다. 따라서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한계 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에 대한 대책도 면밀히 마련, 실핏줄 경제를 지켜야 한다.

‘청년농부 직거래장터’와 ‘광주리장터’

기지수첩

광주전남의 청년 감소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최근 광주전남연구원이 발표한 ‘광주전남 청년과 일자리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광주 청년 인구 비중은 올해 9월 기준 29.4%에서 2030년 24.7%로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남은 23.1%에서 17.8%로 5.3% 감소했다.

또 광주지역 대출자가 광주지역 내 취업하는 경우는 51.3%로, 광주대출자의 절반이 타 지역에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대출자의 지역 내 잔존율은 36.8%로 대출자의 2/3 정도가 타 지역에 취업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신세계가 지역에 뿌리를 내린 청년농부와 청년기업에게 판로 확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전남도와 농어촌공사는 도시와 농촌 간 직거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부 직거래 장터’를 마련했다. ‘청년농부 직거래 장터’는 소규모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부 생산품의 판로를 개척, 경영자립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한 생산자·소비자 직거래 플랫폼 구축사업이다. 도와 광주·전남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상호연계 추진중인 상생발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박선욱 경제부 기자

앞서 직거래 장터는 지난 7월부터 온라인 장터로 4차례 운영됐으며, 50여명의 청년농부들이 참여해 잡곡류, 과일, 벌꿀 등 100여 종류의 농산가공품을 판매한 바 있다.

지역 대표 유통기업인 광주신세계공사, 광주신세계가 지역에 뿌리를 내린 청년농부와 청년기업에게 판로 확대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두가지가 담보되어야 비로소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전남이 될 수 있다. 앞으로 이와 같은 기회의 장이 많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phone numbers for services like emergency, police, and social welfare.

Table for 전남매일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ddress, phone numbers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and website information.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